

## 제3차 「구성원 대토론회」 결과 보고

주제	글로벌대학 30 사업 관련 자유 토론	
개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일시: 2024. 6. 11.(화) 18:00 ~</li> <li>- 개최장소: 인문대학 문원강당</li> <li>- 참석인원: 145명</li> <li>- 공동주관: 충남대학교, 교수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li> <li>- 사회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김승범 교수</li> </ul>	
자유토론	<p><b>질의 내용</b></p> <p>(교수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슨한 통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기획처장의 메일에서 혁신 기획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나 본지정을 받은 후 교육부에 승인 신청할 때 세부 계획안에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그때 안되면 통합을 철회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명제가 실현가능한지, 또한 계획서 초안이 나오면 공개해 주기를 요청함. 또한 캠퍼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을 한발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li> <li>- 정원감축은 정말로 할 것인지, 정원감축을 20% 하게 되면 등록금 예산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함.</li> <li>- 교명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안심할 만한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li> </ul>	<p><b>답변 내용</b></p> <p>(기획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대학30사업 관련 통합 관련 내용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하이브리드 통합, 즉, 점진적 통합을 추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업계획서 안에 담을 것, 통합 대상교도 한발대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권의 대학을 모색한다는 메가 유니버시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인위적인 캠퍼스 재배치는 없을 것이며 강제적 유사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임.</li> <li>- 이러한 내용들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통합을 반대하는 유사학과와의 경우 시간적 여유와 지속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할 것임.</li> <li>- 캠퍼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한발대와는 공동으로 계획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7.8~7.10 정도에 구성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li> <li>- 정원감축은 2035년~2040년 정도의 시기가 되면 40~50% 정도의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정원 감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의 수치는 자연 감소분을 표현한 것임. 기초학문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li> </ul>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대학교의 교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p>(총학생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원 찬반 투표 관련하여 총장 선거 반영 비율로 적용할 것인지</li> <li>-교명과 졸업장 관련하여 본부의 확실한 입장은</li> <li>-2차 토론회 때 본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2027년 통합대학의 모습이 흡수통합형 캠퍼스로 그려지는데 한발대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지</li> <li>-예비계획서 및 총장 공약 사항 중 메가 캠퍼스 구축의 내용이나 한발대 캠퍼스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 되어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본부 입장은</li> <li>-사업 관련 학생들을 위한 예산 계획은 언제 수립되는지</li> </ul>	<p>(기획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원과 또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임.</li> <li>-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li> <li>-양교간 입장의 차이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 대학은 캠퍼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며, 절충을 하게 되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li> <li>-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 실증연구 중심의 캠퍼스로 재편될 것을 예상하며,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조율해 나갈 예정</li> <li>-예산 수립은 6월 28일자 1차 안에 포함될 것임. 교육과 연구 부분에 있어 의약 바이오, 국방융합, 기초융합학문 분야 및 사회공헌 부분을 포함할 것임. 또한 학생 관련 프로그램, 장학금, 대학원생등록금 등을 고려하고 있음.</li> </ul>
	<p>(직원협의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충남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모나 수준이 대등한 대학은 연합대학 수준 이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렵고, 한발대와 성공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수준이나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발대와 대등한 통합에 반대한다는 교수회의 입장이 궁금함.</li> </ul>	<p>(교수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대가 주도할 수 있는 통합을 해야 함. 유사 전공학과와 규모가 한발대가 더 크기 때문에 통합되었을 때 주도권을 뺏길 수 있고 공대 위주의 통합이 되었을 때 한발대를 흡수 통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화학적 통합의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학교의 평판도가 떨어지고 우수한 학생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며, 여러 가지 갈등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숙의 과정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해야 함. 현재 본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li> </ul>

	<p>(직원협의회장)</p> <p>-통합 논의 시작에 대한 구성원 투표와 통합 과정의 찬반 투표 사이에 글로컬대학30 사업계획서에 대한 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글로컬대학30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가 통합 찬반 투표가 어떻게 다른지</p>	<p>(기획처장)</p> <p>-7월 26일 12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무회의, 대학평의위원회, 대학혁신총괄위원회 등을 거치게 되며, 글로컬대학30 위원회에서 여러 사안을 결정하여 구성원 투표를 7. 8.~ 7. 10. 정도에 진행할 예정임.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으며, 구성원 및 한발대 측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통합설명회, 글로컬대학 30사업 관련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임.</p>
	<p>(경상대학 학생회장)</p> <p>-정원 감축으로 생기는 리스크보다 미충원율로 발생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데 통합을 하지 않아 증가하게 되는 미충원율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할 만한 의견이 있는지</p>	<p>(교수회장)</p> <p>-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2035년 이후가 되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그 시기에는 재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나 현재부터 1차 사업 기간인 5년 동안 정원감축 20%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주장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정원감축에 따른 학부 기준 20%의 등록금은 예산 측면에서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p> <p>(기획처장)</p> <p>-현재 정원감축률은 자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였으며 인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정원수가 줄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학과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p> <p>(교수회장)</p> <p>-통합에 성공하려면 양교 수준이 비슷하고 시너지가 있어야 하며, 규모의 비경제 관점에서 볼 때 캠퍼스 광역화를 통한 유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글로컬대학30사업이 연속적 사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한 이후에 비용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함.</p>

<p>(교수회 부회장)</p> <p>-글로벌대학30사업과 관련하여 본부에서 이미 4월에 방향을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며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일찍 솔직한 입장 공유를 했다면 좋았으리라 생각함.</p> <p>-10년 후에는 화학적 통합은 불가피하리라 생각하나, 유사 중복학과 관련 교원 인건비 등의 예산 부분 내용은 통합 전에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함.</p>	<p>(기획처장)</p> <p>-추후 예산 부분 내용을 조사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논의하겠음.</p>
<p>(자연과학대학 이○○ 학생)</p> <p>-3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수렴한 구성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p> <p>-무학과는 내년에 도입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p>	<p>(기획처장)</p> <p>-현재는 대전 구도심 확보 및 활성화하는 내용과 세종 및 내포를 포함하여 확장하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p> <p>-무학과제도와 관련하여 창의융합대학을 구성 중이며, 이를 통해 전공자유선택제 1학년을 포함하여 2, 3학년은 융합교육, 마이크로디그리, 자기설계전공 등 폭을 확대하여 아우르는 대학을 구성할 예정이며, 조직도의 일부가 나와있으며 조만간 공개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음.</p>
<p>(자연과학대학 조○○ 교수)</p> <p>-학과의 반대가 있으면 화학적 결합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또한 궁극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인지</p> <p>-통합을 하게 되면 1인당 학생 교육비가 떨어지는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졌는지, 또한 통합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B/C분석 등을 통한 수치화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가까운 미래 한발대는 통합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 시점에 우리 대학과 통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며 거점 국립대 중 연합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 또한 제로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을 요청</p>	<p>(기획처장)</p> <p>-화학적 통합은 통합에 대하여 찬성하는 학과를 모델로 하여 27년에서부터 포함할 것이며, 통합을 동의하지 않는 학과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안이므로 현 집행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통합하지 않겠음.</p> <p>-교육비 등과 관련하여 이익 비용 분석 등 용역을 진행하겠음.</p> <p>-사업비 수주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것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p>

	<p>-교연비, 1인당 교육비 등 한발대가 우리 대학 보다 크게 떨어져 통합이 되면 한발대와의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격차 해소 방안은?</p>	
	<p>(교수회장)</p> <p>-학생의 이탈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을 하게 되어 사업비를 받게 된다면 무학과 제도와 관련하여 비율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있는지</p>	<p>(기획처장)</p> <p>-추후 상황을 보가면서 결정해도 될 사안이라 생각함.</p>
	<p>(인문대학 서○○ 교수)</p> <p>-한발대-공주대가 통합한 학교보다 충남대가 경쟁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한발대-공주대 연합이 충남대에게 위협이 될 것 같지 않는데 이것이 위협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p> <p>-본격적으로 화학적 통합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때의 입결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화학적 통합을 하게 된다면 통합 비용조달해야 하는 우려가 있는데 반드시 통합을 하여야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p>	<p>(기획처장)</p> <p>-학령인구 감소가 급속화된다고 하면 우리 대학이 공주대와 한발대 통합 캠퍼스와 비교하였을 때 어려울 수 있으며 기초 학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대학이 거점대학교로서 위상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올해 글로벌 계획서는 통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p> <p>-입결이 초반에는 떨어지나 곧 회복될 것이라 보며, 경상대 사례를 보면 연간 50~60억 정도로 3년 정도 통합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p> <p>2030년대 시기에 통합되는 학과의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입결 및 탈락률에 대해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p>
	<p>(대학원학생회장)</p> <p>-혁신 계획안 내용 중 대학원생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대기업과의 연계, 정출연과의 연계, 대전시 연계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정주 인원 증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실현 가능한지</p> <p>-입결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의 브랜드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p> <p>-치대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p>	<p>(기획처장)</p> <p>-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의약바이오, 국방융합 관련 대기업 협력 방안의 내용을 계획서에 담으려고 함.</p> <p>-캠퍼스 체제를 통해 입결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p> <p>-일단은 잠정 중지된 상태이며, 구성원 의견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p>

	<p>(예술대학 조○○ 교수)</p> <p>-혁신과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건의</p>	<p>(기획처장)</p> <p>-좋은 의견이며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음.</p>
	<p>(총학생회 부회장)</p> <p>-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초기에 대학 브랜드 가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의 취업 경쟁력, 또는 시스템 개별화된 특수한 학과 커리큘럼, 또는 자아성장 및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없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p> <p>-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입학설명회나 학교 방문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입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p> <p>-10년~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글로컬 계획서에 담긴 사업을 현 집행부(본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미래의 총장(집행부)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p> <p>-화학적 통합의 정확한 정의는?</p>	<p>(기획처장)</p> <p>-교육혁신 부분의 내용은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 및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계속 담아 나갈 것임.</p> <p>-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으며 보완하겠음.</p> <p>-첫 단추를 끼는 것은 현 집행부들의 몫이며, 다음 총장,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기 어려우며, 학과나 단과대학, 학과장 회의 등에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할 예정임.</p> <p>-이공계적인 콘셉트로, 유사 학과를 포함하여 모두 통합하는 것을 화학적 결합이라고 보고 있음.</p>
	<p>(공과대학 손○○ 교수)</p> <p>-화학적 통합, 캠퍼스 이원화 등이 국립대학 통폐합 설치령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또한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10년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심사를 받을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p> <p>-기존의 용역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전임 집행부의 논리를 고찰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p> <p>-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p> <p>-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p>(기획처장)</p> <p>-자발적인 통합의 의지가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이며, 다른 부분에는 내부 혁신적 요소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물론 심사 현장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할 예정</p> <p>-위원회와 해당 학과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할 예정</p> <p>-속도감이 없고 미진한 통합 수행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통합을 찬성하는 학과는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이며 다른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지원할 것임.</p>

	<p>(자연과학대학 조○○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대상 학과의 의견수렴 관련 진행 경과</li> <li>-통합 대상이 되는 학과에 결정할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li> <li>-입결 성적 하락에 따라 학교가 직격탄을 맞게 되므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요청</li> </ul>	<p>(기획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주 내로 의견을 받아서 27~29년도에 집중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 분야들을 조사할 것이며, 그 후 각 분야의 상대교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예정</li> <li>-우선권을 주기 어려움.</li> <li>-말씀한 내용에는 동의하며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li> </ul>
<p><b>총장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대학30 사업계획서는 통합 기반으로 예비 선정된 상태이며 7월 26일까지 본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구조이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li> <li>-통합과 무전공제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진행 중인 제도로 학사제도 개편 등의 부담이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가 행하는 미진한 부분은 함께 보완하여 본 계획서를 완성하겠음.</li> <li>-3차에 걸친 글로벌대학30 사업 대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li> </ul>	
<p>기타</p>	<p>-개최 사진</p> 	



